

너를 사랑

MARSA KOREA | 2020 12
MAGAZINE 제 18호

한국해양구조협회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할 2021년을 준비합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주식회사 코르웰
KORWELL CORPORATION

東一造船株式會社
DONGIL SHIPYARD CO., LTD.

(주) 코마린기자재
KOMARINE MATERIALS CO., LTD.

會長 金 成 泰

船舶修理 • 船舶新造 • 海上貨物運送 • 海運代理店 • 船舶給油 • 水産物輸出入
Shiprepairing Shipbuilding Marine Transportation Shipping Agent Bunker Supply Marine Products Export/Import

TEL.(051)200-1111 / FAX. (051)200-1188 / E-mail. kwagent@korwell.co.kr / http://www.korwell.co.kr
TEL.(051)200-1211 / FAX. (051)200-1288 / E-mail. dongil@disyard.co.kr



한국해양구조협회

MARSА KOREA MAGAZINE

2020 12
제 18호



발행처 한국해양구조협회
발행인 김성태
발행일 2020년 12월 26일
주소 48562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356번길 93 (용당동)
TEL. 051)714-3695
FAX. 051)714-3095
기획·편집 김다현
디자인·인쇄 세종출판사
TEL. 051)463-5898



표지 제자 「너울 사랑」
바람에 일어나는 물결을 의미하는 '너울'과 봉사정신의 밑바탕인 '사랑'의 합성어로 해양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숭고한 봉사정신이 담겨져 있다.

CONTENTS

Special Theme	
04	신년사
06	칼럼
한국해양구조협회 총재 김성태 선진 해양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민간의 참여와 협력의 가치 지향 필요 _ 구자영(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MARSА News	
09	본부 뉴스
10	1) 2021년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복지사업예산 12억4천4백만원 확보, 협회가 보조사업자로 선정
11	2) '생존수영지도사' 교육단체 등록 3) 국제해양안전대전 참가
12	지부·지역대 뉴스
13	1) 경남서부지부 '바다의 의인상' 단체부문 수상
14	2) 경기충남북부특수구조대 발대식
15	3) 전남동부지부 봉사대 발대식
16	4) 충청남부지부, '2020 해양안전 아카데미' 개최
16	5) 경남서부지부, 통영해양경찰서장 감사패 수여
17	6) 경남서부지부,故경호중 경장 흉상제작 건립 기금전달
18	7) 충청남부지부 장항구난·봉사대 사무실 개소식
20	8) 충청남부지부 보령봉사대, 전북북부지부 '2020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22	9) 해양환경정화활동 소식
24	10) 구조훈련 소식 11) 구조·구난소식
MARSА Story	
26	지부이야기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충청남부지부 이야기	
30	안전을 부탁해
1)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9명의 목숨을 구한 전남동부지부 소속 경병오 선장 2) '해양사고에 민간해양구조대의 도움은 절대적' 3)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해양정화활동 단체지원 공모전' 우승의 영광, 전남서부지부	
32	환경을 부탁해
MARSА Info	
34	국내뉴스
35	1) 수상레저안전법, 11월 27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36	2) 해양오염사고 응급조치 위해 이렇게 해주세요!
37	3) 해양경찰청, 연안사망사고 지난 해 대비 두자리수 감소
38	4)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해수면 매년 3.12mm씩 높아져 5) 해양폐기물, 끝까지 추적한다
MARSА Notice	
40	협회교육안내
41	1) 2021년 국가자격『수상구조사』교육
42	2) 2021년 『인명구조요원/강사』교육
43	3) 2021년 『재난안전지도사』, 『해양안전지도사』교육
44	4) 2021년 『생존수영지도사』교육
44	협회후원안내

총재동정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바다 가족 여러분!

한국해양구조협회
총재 김 성 태



희망을 품고 힘차게 출발했던 2020년 한해가 가고 신축辛丑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은 경사스러운 “흰소의 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소는 우리 삶의 가까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동물이었으며 끈기와 우직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소의 우직함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소원 성취하는 한해가 되시기 기원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해 코로나19라는 큰 역경 속에서도 우리협회 본연의 임무인 구조구난활동과 하계인명구조센터 운영, 해양 정화활동 및 항·포구와 여객터미널 방역활동 등 대민 봉사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청의 민간경상보조사업자(사업비 6억2천2백만원)로 선정되어 민간해양구조대원 3,100여명에게 피복을 지급하여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였고, 단체상해보험에 약4,400명을 가입시킴으로써 대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일의 경우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민간해양구조세력의 선봉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에 전념해 주신 우리협회 모든 구성원들과, 물심양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해양경찰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바다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국난에 버금가는 복병을 만나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어두운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협회 또한 당초 예상하였던 사업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나고 의견을 모으는 등 소통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난날의 평온했던 일상을 회복한 후 협회의 발전을 위해 가일층 매진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취임사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새해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회원들의 복지향상, 협회의 위상강화를 통해 우리 협회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취하지 못하였던 정부의 예산지원과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을 위해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지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더 많은 민간해양구조대원들에게 노력에 대한 혜택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사업비 12억4천4백만원을 지원받아 기존의 피복지급과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추가하여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까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피복과 보험은 지난해 보다 양과 질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교육훈련부문은 유튜브, QR코드 등 사이버 콘텐츠를 제작, 활용함으로써 비대면 스마트 교육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통과 협력의 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크게 위축되었던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대로 구성원들은 물론 관계 기관 단체들과 소통 협력함으로써 협회의 현안들이 개선되고 나아가 제도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바다에 뛰어 들어야 한다.”는 격언처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바다 가족 여러분들을 믿고 의지하며 소처럼 묵묵하게 험한 파도와 역경을 헤쳐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차가운 바람과 거센 파도와 싸우며 국민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해양경찰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열일 마다하고 촌각을 다투는 구조현장으로 뛰어 나가는 민간해양구조대원들에게 한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을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을 응원하며, 신축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축년 원단

한국해양구조협회 총재 김 성 태

칼럼

선진 해양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민간의 참여와 협력의 가치 지향 필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청장(치안감) 구 자 영

파도를 가르는 여객선 선수에서 바람을 맞으며 서있는 레오 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

로맨틱 영화의 배경이 된 타이타닉호(46,328톤)는 초호화 거대 여객선으로 실제 1912년 4월 영국에서 미국으로 처녀 항해 중 빙산과 충돌, 침몰하면서 1500여명이 사망한,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기록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하드웨어인 선박에 대해서는 SOLAS(Safety of Life At Sea)협약을, 소프트웨어인 선원에 대해서는 STCW(Standards for Training, Certification & Watchkeeping)협약을 마련하고 해상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협약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바다와 더불어 삶을 영위하는 한 해상사고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유럽 등 해양 선진국에서는 해상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찍이 민간자원을 활용한 구조대응시스템을 마련해왔다. 미국은 1848년에 난파선원과 승객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자원봉사단체인 'US LIFE SAVING SERVICE'를 창설했고 영국은 1824년 왕립구명정협회(National Institution for the Preservation of Life from Shipwreck)를, 일본도 1889년에 수난구제회를 설립했다.





▲ 협회 창립식, 현판식

외국의 민간단체는 100년이 넘는 역사와 함께 많게는 5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하였고 자체 보유한 구조정, 호버크래프트 등으로 활발한 구조활동을 펼칠 뿐만 아니라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훈련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영국 왕립구명정협회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연간 예산이 26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 제주에서 부산으로 항해하던 남영호(362톤)가 과적을 원인으로 침몰하면서 32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당시 해양경찰본대에 구난통신실이 처음 설치되었으며 1993년 292명이 사망한 서해페리호(110톤) 사고를 계기로 해양구조업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천안함, 세월호사고 등과 같은 대형해양사고 발생 시 불특정의 산업잠수사나 잠수인력이 자원봉사 활동을 했을 뿐 해양구조를 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제도개선, 연구개발 등을 선도할 중추 역할 기능이 없었던 가운데, 2013년이 되어서야 민간주도의 수난구호단체인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창립하게 되었다.

지난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를 분석해보면, 전체 해양사고의 63%가 어선에서 발생했으며 유도선 등 레저선박사고를 포함할 경우 전체 해양사고의 대부분인 76%를 차지한다. 발생 해양사고의 62%는 해양경찰이 구조했으며 그 다음으로 민간해양구조세력이 10%, 어선이 9%로 약 19%가 민간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해양구조 사례로는 2014년 9월 홍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 침수된 유람선 바캉스호(171톤)를 민간해양구조세력 어선 10여척과 유람선 3척이 사고 후 3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승선원 109명 전원을 구조하였다. 제2의 해양구조세력인 민간해양구조세력이 없었다면 생존결과는 크게 달랐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한국해양구조협회는 선진 해양강국에 비해 뒤늦게 출발한 신생조직이지만 최근 5년간 해양사고 구조실적을 단순비교해 보면(해양사고 발생건수 논외), 그 역량은 단연코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할 만하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영국 왕립구명정협회와 일본 수난구제회는 매년 340여명을 구조한데 반해 한국해양구조협회를 비롯한 민간해양구조대세력은 무려 1,460여명을 구조한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다.

칼럼

하지만, 우리 민간해양구조세력에 대한 처우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인당 지원비가 의용소방대의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 7만원 수준이라는 따끔한 질책을 받을 정도로 부족하기에 남해안의 해양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 해양경찰청장으로써 죄송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국가(해양경찰)가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 대형화, 복합화, 다양화되는 비정형적 사고가 늘어나고 광활한 바다에서 해양경찰이 모든 사고와 관련하여 골든타임을 지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민간의 협조가 더 없이 절실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과거에는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의 통제와 공권력이 주요수단이었다면 지금은 민간의 참여와 협력의 가치를 지향하며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거버넌스의 시대가 도래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향후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해저동굴 탐사 등 수상레저활동 또한 첨단화, 다양화되면서 자동화, 무인화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구조역량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증대될 것이며, 어업인 중심의 민간구조정책에서 드론구조대, 서퍼구조대 등 인적구성을 다양화 하는 등 저변을 확대하고 대규모 해양사고에 필요한 예인선, 크레인선 등 구조자원도 점차 편입 확대시켜 재난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있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민간해양구조세력의 활동비용을 전적으로 회원들의 회비 등으로 부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보조금 등 국가적 지원을 통해 성장동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민간해양구조세력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지원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에 나오는 바다의 신(神) 글라우코스는 조난당한 선원들을 돕는 수호신이다.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선진 해양사고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여러분의 글라우코스가 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 선박구난, 실종자 수색작업중인 협회대원들



2021년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복지사업예산 12억4천4백만원 확보, 협회가 보조사업자로 선정

해양경찰청에서는 2021년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복지예산을 12억4천4백만원으로 확대편성 하였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상기 복지예산은 공모절차를 거쳐 우리협회가 2년 연속 보조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현재 우리협회 주관하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해양경찰청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및 피복 지급에 필요한 예산(6억2천2백만)을 최초로 확보하고 우리협회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민간해양구조대원들에 대한 피복지급(3,101명) 및 단체상해보험 가입(4,366명)의 혜택을 시행한 바 있다. 금년도는 6억2천2백만원에서 정확히 2배 확대된 12억4천4백만원이 확보됨으로써 질적·양적으로보다 폭넓은 복지혜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년도의 사업범위는 지난해의 단체피복 지급,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추가하여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포함되었다. 단체피복 지급의 경우, 지난해 기동복 지급자명단을 토대로 중복지급을 방지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계활동복 또는 모자, 점퍼 등을 지급할 예정이며 단체상해보험 가입은 보험가입 내용에서 가입대상, 가입조건, 가입금액 및 보장조건 등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사고는 육상사고 대비 원거리 이격, 주변 협조자 부재 등으로 최초 구조자의 역할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므로 수색구조기술 습득으로 구조구난의 골든타임 확보가 가장 최우선의 임무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의 경우,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전문교육을 통하여 수중수색구조 기법, 재난 상황별 조치요령, 응급처치이론, 조난선박 예인술 등 구조역량을 강화하고 해양봉사자로서의 전문성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상기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은 2021년 1월부터 세부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약 7,000여명의 민간해양구조대원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생존수영지도사’ 교육단체 등록



◀ 2018 대한민국해양안전엑스포에서 우리협회 강사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가르치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우리협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생존수영지도사’ 교육단체로 등록되었다.

‘생존수영지도사’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자로서 생존수영 및 사고대처요령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행하게 된다.

금번 교육단체 등록을 통해 협회는 생존수영지도사 1,2급 자격과정을 개설하고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생존수영지도사 2급은 수상사고 발생 시 개인의 생명유지를 위하여 생존수영 및 사고대처 요령에 대한 교육훈련을 진행하며 1급은 관련교육에 있어 최상급 숙련기능을 보유한 자로 2급 교육 훈련과 관리, 연구, 평가,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

게 된다.

교육부의 학교체육진흥법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생존수영 교육을 초등학교 전학년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생존수영지도사 인력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협회는 ‘수상구조사’, ‘인명구조요원·강사’ 등 해양안전 교육으로 국내 최고의 전문교육기관으로써 다년간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강사들과 함께 생존수영지도사를 양성하여 아이들이 바다에서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제해양안전대전 참가



▲ 토탈솔루션 부스 신철원 대장



▲ '2020 국제해양·안전대전' 개막식

지난 11월 1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2020국제해양안전대전에 우리협회 민홍기 이사장이 VIP로 참관하여 개막식을 축하하였다.

국제해양안전대전은 해양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주최하였으며 수도권 유일의 해양특화전시회로 대부분 지방에 집중되어있는 해양전시회를 대신하여 수도권 업체들의 참가가 용이하며 해양관련 주요기관 및 단체가 수도권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쉽다는 강점이 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체험행사 등 규모를 대폭 축소하였으며 비대면 전시회를 동시 개최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되어 안전을 중점으로

내실있는 전시회를 진행하였다.

전시회는 약 80여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였고 해안감시레이더, 해상용위성안테나 등의 항해, 통신 장비관을 비롯해 특수 장비관, 조선관 등 다양한 전시품목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행사에는 전북북부지부 스마트해양순찰대 소속으로 '토탈측기솔루션' 드론업체를 운영하는 전원복 대표와 신철원 대장 등이 참여하면서 수색구조활동에 사용되는 드론 등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경남서부지부 '바다의 의인상' 단체부문 수상

- 전남동부지부 소속 정병오 선장 개인부문 수상 -

지난 12월 7일, 경남서부지부(단체)와 전남동부지부 소속 정병오 선장(개인)이 '바다의 의인상'을 수상하였다.



◀ 경남서부지부 바다의 의인상 수여식

지난 12월 7일, 경남서부지부(단체)와 전남동부지부 소속 정병오 선장(개인)이 '바다의 의인상'을 수상하였다. 해양경찰청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중 사고현장에서 구조임무를 수행한 숨은 의인을 공모하였으며 내·외부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개인 3명, 2개 단체를 최종 선정하였다.

경남서부지부는 거제 흥포선착장 실종자, 고성 소재 조선소 추락 실종자, 홍도 다이버 미출수자 등 크고 작은 해양사고에 수색 및 구조 업무에 동원되어 인명구조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통영해양경찰서와 함께 수색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수시로 훈련을 진행하며 기량을 넓히고 있다. 이어 지난 11월 8일, 여수시 초도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중 낚시 어선이 암초에 부딪혀 침수하면서 사람들이 해상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목격한 전남동부지부 소속 정병오 선장은 현장으로 즉시 이동하여 표류하던 승객과 승원 9명을 전원 구조하였다. 정병오 선장의 이야기는 연일 언론에 보도되며 민간해양구조세력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 경비함정 1척당 서울시 면적(605.2km²)의 약 10배(6,385km²)를 담당하고 있어 신속한 임무 수행에 민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양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에 힘을 보태준 모든 '바다의 의인'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전하였다.

해양경찰청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개인 7명, 5개 단체를 '바다의 의인'으로 선정했으며 지난 2018년에는 우리 협회 장흥구조대가 단체상을 수상한 바 있다.



경기충남북부특수구조대 발대식

지난 10월 26일, 경기충남북부지부는 제부도에서 경기충남북부특수구조대(대장 신봉재)발대식을 개최하였다.



▲ 단체사진

이날 행사에는 배금란 경기충남북부지부 협회장을 비롯하여 이상인 평택해양경찰서장, 오진택 경기도의원, 고영철 화성시해양수산과장, 정승만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장, 최병천 경기남부수협어촌계협의회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경기충남북부특수구조대는 15명의 대원들로 구성되었으며 개인별 해양구조 및 잠수장비를 갖추며 다년간의 잠수 경력을 보유한 최정예 대원들이다. 앞으로 평택해양경찰서 구조대와 합동으로 수중수색, 인명구조 등에 동참하며 활발히 활동할 예정이다.

배금란 협회장은 “오늘 발대하는 경기충남북부특수구조대는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해양구조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앞으로 평택해양경찰서 구조대와 꾸준한 합동훈련을 통해 행복하고 안전한 바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상인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특수구조대 발대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경기남부와 충남북부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발대식에서는 지부와 경기남부수협, 경기남부수협 어촌계협의회 등 3개 단체의 해양 관련 업무협조 및 사업위탁에 대한 업무 협약식도 진행되었다.



▲ 배금란 협회장이 신봉재 대장에게 견장수여



▲ 업무협약 체결

전남동부지부 봉사대 발대식



▲ 단체사진

지난 11월 19일, 전남동부지부는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전남동부지부 봉사대(대장 김강순)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조병중 협회장을 비롯한 송민웅 여수해양경찰서장, 서은수 여수부시장, 전창곤 여수시의장, 봉사대원 등 총 40여명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자를 50명 내로 최소화하였으며 정부지침 감염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실시하였다.

전남동부지부 봉사대는 여수지역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년간 봉사활동을 해오던 봉사자들로 총 110명의 대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봉사대이다. 전남동부지부는 금번 발대식을 통해 해양환경정화활동을 비롯하여 도서지역 거주민들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봉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충청남부지부, '2020 해양안전 아카데미' 개최

지난 11월 20일, 충청남부지부는 수협중앙회 보령어업안전조업국에서 '2020 해양안전 아카데미' 제1기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해양안전아카데미는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총 5일간 10시간의 이론과 실습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30여명의 어업 및 수산업 종사자들이 참가하였다.

강의 내용은 구조구난활동, 해양 오염방제, 해양환경보존과 관련된 사례와 해양정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드론조종술, 함정견학, 심폐소생술과 같은 실습을 병행하였다. 특히 성대훈 보령해양경찰서장, 한상범 보령시 해양수산업관광국장이 강사로 초빙되어 구조사례 및 해양정책과 관련된 실무 중심의 경험담들을 구체적으로 공유하여 현장감 있게 진행되었다.



▲ 제1기 '해양안전아카데미' 수강생들

5일간 10시간의 수업을 이수한 수강생들은 서완봉 협회장으로부터 제1기 해양아카데미 수료증을 전달받았다. 충청남부지부는 향후 1기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여 현실감 있고 다채로운 내용을 담아 지속적으로 아카데미를 이어갈 예정이다.



▲ 성대훈 보령해양경찰서장의 특강



▲ 한상범 해양수산업관광국장의 특강

경남서부지부, 통영해양경찰서장 감사패 수여

지난 11월 19일, 경남서부지부는 김평한 통영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해양경찰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수여식은 김태정 협회장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경남서부지부는 전문 잠수요원들로만 구성된 경남서부특수구조대를 발대후 후홍도섬 다이버 미출수자 구조 등 크고 작은 해양사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인명구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해양경찰과 민·관 구조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부 자체 잠수훈련을 수시로 진행하여 개인역량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 (왼쪽부터)김평한 서장, 김태정 협회장

김태정 협회장은 “해양사고에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대응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을 도와 구조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안전한 통영바다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남서부지부, 故정호중 경장 흉상제작 건립 기금전달

- 김태정 협회장 제막식 참석 -



▲ 제막식 현장

지난 6월 6일, 통영 한산면 홍도 해상동굴 내부에서 고립된 남녀 다이버 2명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던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정호중 경장(추서)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당일 사고현장에는 경남서부지부 김태정 협회장과 대원들도 투입되었고 그 당시 위험했던 상황을 고스런히 기억하고 있다. 이에 경남서부지부는 대원들의 마음을 모아 통영해양경찰서에서 진행하는 故정호중 경장 흉상제작 건립에 300만원의 기금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지난 12월 9일, 故정호중 경장의 흉상 제막식이 통영해양경찰서에서 개최되었다. 우리협회 김태정 협회장이 대표로 참석하였고 김평한 통영해양경찰서장,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묵념, 헌화 등으로 고인의 살신성인 정신을 기렸다.



충청남부지부 장항구난·봉사대 사무실 개소식

지난 11월 12일, 충청남부지부 장항구난대·봉사대는 장항 신항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 단체사진



▲ 현판식

이날 행사에는 서완봉 충청남부지부 협회장을 비롯하여 이천후 부협회장, 임강혁 장항구난대장, 추월숙 장항봉사대장이 참석하였으며 외빈으로는 성대훈 보령해양경찰서장, 노박래 서천군수 등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장항구난·봉사대 사무실은 서천군 수협(조합장 박정진)이 공간을 마련해주었으며 보령시 대신항만관리청에 신항 공지 사용허가를 받아 개소하게 되었다.

이날 관내 구조구난 및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장항구난·봉사대를 위해 성대훈 서장은 구조구난에 필수적인 무전기 6대를 지원하였으며 서완봉 협회장과 이천후 부협회장은 지역대 발전을 위한 격려금을 전달하며 장항구난·봉사대의 활동을 응원하였다.

충청남부지부 보령봉사대, 전북북부지부 '2020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지난 11월 24~25일 양일간 충청남부지부 보령봉사대는 '2020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진행하였다.



보령봉사대, 김장나눔행사

김장봉사활동에는 김미경 보령봉사대장을 비롯한 70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서완봉 충청남부지부협회장과 성대훈 보령해양경찰서장, 김동일 보령시장이 참석하여 봉사대원들을 격려했다.

보령봉사대가 주관했던 이번 행사에는 보령해양경찰서와 10개의 보령지역 기업 및 단체((주)신성마린, 서대종합건설(주), 보령돌봄이, 송광한의원, 바다수산, 여성어업인보령지회, 신아공업사, 자유전자, 대원주유소, 강민식 농장)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다.

특히 이번 활동을 위해 보령에서 큰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 강민식씨로부터 개인소유 농장 400평을 무료로 제공받아 보령봉사대가 배추를 직접 재배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행사의 의미를 더하였다.

이틀간 총 2020kg를 김장한 보령봉사대는 지역 독거노인 50세대 및 소규모 복지시설 등에 김장김치를 전달하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 전북북부지부, 김장나눔행사



앞서 우리협회 전북북부지부 역시 지난 11월 24일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2020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전북북부지부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지부 소속 시민해양봉사대와 군산시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전략배 시민해양봉사대2기 회장과 이상미 봉사부장, 김석 총무 등 총 4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김장김치는 관내 독거노인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들에게 전달되었다.

충청남부지부에 이어 전북북부지부까지 해양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며 훈훈한 소식을 이어가고 있다.



해양환경정화활동 소식

| 부산지부, 영도구 봉래항 해양환경정화활동 20톤 폐기물 수거

지난 11월 7일, 부산지부는 영도구 봉래항 부산대교 아래에서 부산지부 해양특수구조대, 여성봉사대, 운영위원, 예부선선주협회, 영도구청 등 약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중수변정화활동을 진행하였다.



▲ 단체사진



▲ 수거한 폐기물 이동중인 부산지부 대원



▲ 크레인으로 바닷속 쓰레기를 건져올리고 있는 중

20명의 잠수요원들이 봉래항에서 건져올린 쓰레기들은 25톤 크레인을 동원할 정도로 거대한 폐기물들이었으며 여기에는 오래된 페타이어, 불법투기된 폐전선 멍치, 폐어망 등 20톤 가량이 수거되었다.

부산지부는 금년도 해양환경정화작업만 9차례 진행하였으며 총 수거한 쓰레기양만 64톤에 달하면서 명실상부 해양 봉산단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 경남동부지부, 창원시 진해구 초리도 해양환경정화활동

지난 10월 31일, 경남동부지부는 창원시 진해구 초리도에서 100여명의 대원들과 수중수변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4톤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한 경남동부지부는 초리도에서 육지로 쓰레기를 이동하기 위해 선박 3척을 동원하는 등 대대적인 해양정화활동을 벌였다.

금년도 총 13차례 해양정화활동을 실시한 경남동부지부는 마산, 진해 항포구, 해수욕장 뿐만아니라 지자체에서



▲ 쓰레기 수거 중인 경남동부지부 대원



▲ 수거한 쓰레기를 배에 옮기는 작업 중

관리되고 있지 않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해양환경정화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서지역의 쓰레기 수거작업은 대원들의 이동과 쓰레기를 옮기는 작업을 위해 반드시 선박을 이용해야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십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해양지킴이로서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다.

| 전남서부지부, 평화광장 일대 해양환경정화활동

지난 10월 17일, 전남서부지부는 장재구 협회장을 비롯한 대원들과 목포해양경찰서,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해양소년단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광장(해양레포츠센터) 일대에서 해양환경정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금년 총 4차례 해양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한 전남서부지부는 장재구 협회장이 직접 바닷속 쓰레기 수거에 앞장서며 최정예 잠수요원들을 중심으로 수중정화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 바닷속에서 쓰레기를 건져올리고 있는 전남서부지부 대원들

목포 평화광장과 어촌마을 중심으로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남서부지부는 관내 항포구 위주의 환경정화작업에서 점차 활동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 통영구조대, 2020년 마지막 해양환경정화활동 진행

지난 11월 7일 통영구조대는 미수 해안도로 일원에서 2020년 마지막 해양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9차례 해양환경정화 작업을 진행했던 통영구조대는 10톤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해오며 지역사회 환경정화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해양환경정화활동 역시 조창국 대장을 비롯한 9명의 전문 잠수요원들이 수중에서 쓰레기를 건져 올리며 바닷속 환경정화활동에 나섰으며 20명의 대원들과 가족들이 해안가 주변 환경정화작업을 진행하여 약1.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금년도 활동을 마무리했다.



▲ 통영구조대원과 가족

구조훈련 소식

| 전북남부지부, 구조역량강화를 위한 수난대비 훈련



▲ 어선을 이용해 인명구조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전북남부지부 대원

지난 11월 5일, 전북남부지부는 부안해양경찰서에서 주관한 '구조역량강화를 위한 수난대비 훈련'에 참가하였다.

이번 훈련은 기존의 프로그램 사전예고 훈련과는 달리 훈련 프로그램을 훈련 당사자들에게 비공개로 진행하였다. 훈련에는 해경 경비함정 9척, 전북남부지부 대원 보유 어선 4척이 동원되었다.

이번 훈련은 부안군 임수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되어 승선원이 바다에 빠지고



낚시배가 침수되는 복합적인 상황을 가상하여 실시하였다.

선박정비 및 해안순찰중이던 전북남부지부 특수구조대원에게 승선원 9명 중 6명이 표류중이라는 선박사고 상황을 알리고 위치확인 후 출동하여 구조구난 수습 및 실종표류자 수색까지 진행하였으며 총 3시간에 걸쳐 진행된 훈련은 실제상황을 방불케 하였다.

부안해양경찰서와 전북남부지부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 해양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 역량 및 구조협력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 전북북부지부, 군산해양경찰구조대 합동 수난대비 교육 훈련 실시



지난 11월 9일 전북북부지부 스마트해양드론순찰대는 군산해양경찰 구조대 합동 수난대비 교육훈련을 군산해양경찰 전용부두에서 실시하였다.

금번 교육훈련은 신철원 스마트해양드론구조대장을 비롯한 4명의 대원들이 군산해양경찰구조대원 30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교육훈련에는 해양사고시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인명구조, 수색방법, 순찰방법 등을 공유하였다.



▲ 군산해양경찰에게 드론 이론과 실습을 교육하고 있는 신철원 대장

전북북부지부 스마트해양드론순찰대는 민·관·군과 함께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서 실제 사고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매주 팀을 구성하여 바다 등을 순찰하며 드론을 통하여 사전사고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해양경찰뿐만 아니라 육군35사단과 함께 정기적인 드론훈련을 진행하면서 최근 활약상을 인정받아 제35보병사단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인원이 축소되고 범위가 좁아짐으로 금년에는 아쉬움이 많았지만 2021년에는 전문기관 단체들과 함께 활동범위를 넓혀 좀 더 현장감 있는 교육과 훈련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MARSA NEWS | 지부/지역대 뉴스 |

| 서귀포구조대, 민·관 합동 수중수색구조 훈련

지난 10월 28일, 서귀포구조대는 서귀포해양경찰서와 함께 서귀포항 동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민·관 합동 수중수색 구조훈련을 실시하였다.

총 20명이 참여한 이번 훈련에는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생동감있는 훈련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문 잠수요원들 중심으로 수중수색 구조기법과 수중스쿠터·리프트백 등 장비사용법을 공유하고 미출수 해녀의 수색상황을 가정하며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이 끝난 뒤 서귀포해양경찰서와 서귀포구조대는 훈련강평을 통해 개선방안을 공유하였으며 현재 해양경찰이 추진 중인 정책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 훈련 후 기념촬영

구조 · 구난소식

| 전남동부지부, 울촌 송도 바지 화재사고 현장투입

지난 12월 15일, 오전 7시 17분께 전남 여수시 울촌면 송도 인근 해상에 있던 소형선박에 불이 났다. 이 불로 1톤급 선외기 어선에 실려 있던 통발어구 500여개와 선박과 연결된 작업용 바지선이 함께 불에 탔다.



▲ 화재진압 현장

광양파출소로부터 연락을 받은 전남동부지부 광양지대 소속인 황교영 광양지대장, 백선호, 홍경민, 우성민, 엄장민 대원 등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5척의 어선을 이끌고 사고현장에서 해양경찰과 함께 화재를 진압하였다. 불이 날 당시 선원들도 진화에 나섰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여수해양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충남북부지부, 당진 석문방조제 40대 실종자 수색작업

지난 11월 14일, 석문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해루질을 하던 40대 남성이 실종돼 평택해양경찰과 경기충남북부지부 소속 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이 나섰다.



▲ 물속에서 로프를 이용하여 실종자를 수색중인 평택해경과 경기충남북부지부 대원들

이날 오전 10시 28분쯤 석문방조제 약 500m 해상에서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은 낚시객이 사고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해경은 경비정 4척과 연안구조정 3척, 헬기 1척 등을 동원하였고 경기충남북부지부에서는 민간구조선 9척과 잠수장비 30개 등이 동원되었다. 수색작업은 4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루평균 20명의 경기충남북부지부 대원들이 수색작업에 동원되었다. 실종자 A씨는 사고발생 5일째, 해경과 협회 대원들이 로프를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수중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 황파에 떠내려간 선박들, 사고수습에 나선 장흥구조대

지난 10월 9일, 오전 6시 20분께 노력도에서 심한 바람과 파도로 인해 고박이 풀린 소형선박 2척이 파도에 떠밀려가 테트라포드에 부딪쳐 상당히 큰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신고를 받은 장흥구조대 박종문 대장을 비롯한 6명의 대원들이 크레인과 선박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인양조치 하였다. 이어 10월 11일, 노력도와 질마도 중간지점 해상에서 어선1척이 너울성 파도와 강한 바람에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만큼, 장흥구조대는 사고신고를 받고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선 결과 안전하게 사고를 수습할 수 있었다.



▲ 크레인과 선박을 이용하여 사고 선박을 수습하고 있는 장흥구조대

매일 야간에 팀을 구성하여 해안가, 항포구 중심으로 순찰을 돌고 있는 장흥구조대는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15차례의 크고 작은 해양사고에 투입되어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지부이야기 _충청남부지부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충청남부지부 이야기

| 인터뷰 _ 충청남부지부 강호규 사무국장 |

우리협회 충청남부지부는 지난해 11월, 서원봉 협회장의 취임과 함께 44명의 임원진과 551명의 회원들이 모여 12개의 지역대(구조대2, 구난대5, 봉사대5)를 발대 하면서 성공적인 재출범을 알렸다.

1년이 지난 지금, 보령해양경찰서와 안전한 바다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현재 명실상부한 보령지역 최고의 봉사단체로 입지를 굳히며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실행력으로 봉사의 꿈을 펼치고 있는 충청남부지부를 들여다보았다.



탄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 간담회에 참석한 12개 지역대장과 서원봉 협회장(앞줄 맨 오른쪽), 성대훈 보령해양경찰서장(앞줄 가운데)

충청남부지부가 재출범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었던 사안은 '조직의 체계화'였다. 대규모 회원들로 이루어졌기에 조직 체계화를 위해서는 지부와 지역대 간의 소통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지부는 상반기 이사회를 통해 운영 전반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임원진과 대장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협회장과 12개 지역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건의사항은 관계자와의 조율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서완봉 협회장은 2019년 11월, 12개의 지역대 발대식 현장에서 새로 영입한 회원 300명의 기동복을 후원하였다. 여기서 임원들까지 힘을 보태면서 아낌없는 후원이 이뤄졌다. 이처럼 출범과 동시에 통 큰 행보를 보였던 협회장은 지역대 사무소 개소식, 봉사활동현장 등 크고 작은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서 대원들의 격려에 소홀함이 없다. 지난 9월에는 5개의 구난대에게 구조구난어선 표지판150개를 직접 제작함으로써 대원들의 소속감 및 책임감 고취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충청남부지부는 협회장을 필두로 탄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 협회장이 배포한 구조구난어선 표지판



▲ 간담회 참석한 서완봉 협회장

지부운영을 위한 행정 능력



▲ 장항구난대·봉사대 개소식



▲ 홍원구난대·봉사대 개소식

충청남부지부의 봉사활동이 지역 내에 알려지고 인정 받으면서 지역 커뮤니티와의 상호협조 공조체계를 굳건하게 다져가고 있다. 현재 10여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의 후원과 지지가 이어지면서 3,900여만원의 후원금을 지원받아 재정적 기반에 보탬이 되고 있다. 또한 관할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 정부투자기업 등 관공서, 민간기업, 시민단체들과의 공조체계를 이루면서 물적, 인적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부의 행정능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서완봉 협회장과 운영위원들은 대원들이 장비를 보관하고 기동력



을 갖출 수 있도록 각 지역대 사무소 확보에 나섰다. 폐쇄된 해경파출소 등 사용하지 않는 국유재산 등을 봉사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의 협조를 구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최종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어낸 지부는 지난 4월에는 흥원구난대·봉사대 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하였고 이어 지난 11월에는 장항구난대·봉사대의 사무소 개소식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부는 자치단체에서 진행되는 지방보조금 사업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사업이 전면취소되어 현재 보류 상태에 있다. 비록 현재 상황은 힘들지만 여기서 주춤하지 않고 내년을 기약하며 지자체에서 주력하는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봉사의 기회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봉사의 물결

해양에서의 주된 봉사활동 당면 '구조와 구난'이다.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보령지역에서의 굼직한 구조구난 소식에 충청남부지부 지역대 참여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해양에서의 봉사활동은 개인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보령해양경찰서와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골든타임을 위해 실제 사고 발생시 해양경찰서에서 즉시 대장들에게 연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보령봉사대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해양에서의 봉사활동에 멈추지 않고 육지에서도 봉사대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다양한 활동소식이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독거노인 연탄나눔, 2020kg 김장나눔, 어민가족 집수리 봉사 등 지역사회에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봉사단체로서 눈부신 봉사의 물결을 이어가고 있다.



▲ 집수리 봉사활동



▲ 해양환경정화활동

2021년도가 더 기대되는 이유



충청남부지부는 연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 외에 타지역의 모범사례를 모니터링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접목 시키고자 준비하고 있다. 지난 11월에 개최한 '해양안전아카데미' 역시 지부의 이러한 안목으로 기획한 활동이다. 보령의 3개 시군에서 해양안전지킴이를 양산한다는 취지에 기획한 사업으로 해양정책, 해양환경, 안전교육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시민들이 직접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코로나 정국에 따라 참여인원은 축소됐지만 뜨거운 열기만큼은 식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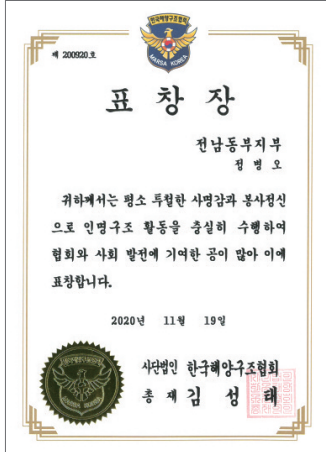
▲ 해양안전아카데미

충청남부지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눈부신 성과들을 이루어 오면서 지부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다. 다가오는 2021년을 위해 지역대장들과 대원들의 활동방안을 강구하며 오늘도 씩씩이 달려가고 있다.

활동 제약 없이 펼쳐질 지부의 봉사활동이 얼마나 무궁무진할지 앞으로의 활약상을 기대해본다.

안전을 부탁 海

1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9명의 목숨을 구한 전남동부지부 소속 정병오 선장



▲ 협회 김성태 총재 표창장 수여

▲ 정병오, 신경숙 부부에게 인명구조유공에 대한 감사장과 명패를 전달한 송민웅 여수해양경찰서장

지난 11월 8일, 오후 1시 11분쯤 전남 여수시 70km 떨어진 해상에서 낚시객들을 태운 9.77t 급 낚시배가 암초에 부딪쳐 침몰하기 시작했다. 탑승원 9명은 뱃머리 쪽으로 긴급히 피신했지만 침몰속도가 빨라 일촉즉발의 긴급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때마침 인근에서 부인과 함께 투망 작업 중이던 전남동부지부 소속 정병오 선장의 눈에 사고현장이 어렵듯이 목격되었다. 여수항으로부터 70km 떨어진 곳으로 해경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정병오 선장은 작업하던 투망도 뒤로한 채 사고 지점으로 긴급히 배를 몰았다. 낚시배는 3분도 안 돼 완전히 물에 가라앉았고 다행히 9명 모두는 구명조끼를 입은 채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40년이 넘는 어업생활을 하며 다양한 상황에 직면했던 정병오 선장은 기지를 발휘하여 배를 바람이 부는 방향에 세우고 구명 부환 여러 개를 엮어 사람들이 떠내려가지 않고 한곳에 모아 버틸 수 있도록 조치한 후 부인과 함께 침착하게 9명 전원을 구조하였다.

“구조를 마친 후에야 해경의 구조협조 요청 문자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 겨울 바다이기에 춥고 바람도 불고 그랬는데, 마침 우리가 바로 옆에 있어서 천만다행이었다.”

입동이 지나 쌀쌀한 날씨가 되었기 때문에 구조된 사람들은 저체온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나오기도 했지만 해경과 119구조대에게 사람들을 안전하게 인계했다. 정병오 선장 덕분에 9명 전원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

2 '해양사고에 민간해양구조대의 도움은 절대적'

정병오 선장의 업적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40년 어업 생활 동안 수차례 실종자 수색 및 구조활동에 참여하였다.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관할 해역은 육지면적의 4,5배에 달하기 때문에 모든 해양사고에 해양경찰이





100퍼센트 구조하기는 힘들어 근처에 있는 민간선박의 도움이 골든타임 확보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협회는 해양경찰청과 함께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과의 통합을 위하여 15개의 지역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실시하고 개별적으로 분리되어있는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을 협회로 등록, 금년 12월까지 약 7,000여명의 대원들을 통합하였다. 해양에서의 구조활동은 육상에서보다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기에 교육과 민·관 합동훈련 등 전문성과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수적 과제였다.

언론에 전부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협회에는 각 지부 및 지역대에서의 구조구난소식이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다. 지난 10월 4일에는 화정면 개도리 월항방파제 앞 해상에서 물에 빠진 낚시대를 건지려다 바다에 빠진 낚시객이 인근 부표를 붙잡고 구조 요청을 하였다. 사고현장을 지켜보던 전남동부지부 소속 문상문 대원은 신고한 겨를도 없이 재빨리 구조해야한다는 생각에 보트를 이용하여 낚시객을 구조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해양사고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 침수된 어선 인양작업중인 장흥구조대



▲ 강원북부지부 구조작업

3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금년 11월까지 협회 대원들이 해양사고 구조, 구난작업에 참여한 실적은 74건으로 총 896명의 인원이 동원되었다. 사고 유형은 인명구조, 선박화재, 차량추락, 기관고장 등 다양했다. 사실 보고되지 않은 건수까지 합치면 수백 건에 달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영웅담은 화려할지 모르나 최근까지 피복조차도 개인 비용으로 구입해왔던 대원들은 바다라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자신의 안위조차 보장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협회는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등 관련기관들을 상대로 부단히 노력한 결과, 지난 2월 26일, 마침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최초로 복지에산(6억2천2백만원)을 확보하면서 피복지급과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기에 복지혜택이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원들의 피부에 닿기까지는 오랜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들이 봉사의 자긍심을 느끼며 안전하게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회 역시, 결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환경을 부탁 海



'해양정화활동 단체지원 공모전' 우승의 영광, 전남서부지부

인터뷰 _ 전남서부지부 김은선 팀장

지난 8월, 환경재단에서는 '2020 환경재단해양정화 활동 단체 지원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배달 포장 플라스틱, 라텍스 장갑, 마스크 등의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들이 바다로 흘러가 해양환경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에 환경재단은 '지구쓰담 캠페인'을 통해 가속화되는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돕고 국내 해양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협회는 공모전과 관련된 내용을 각 지부 이메일로 공지하였다. 그리고 지난 9월 14일, 전남서부지부에서 공모전 우승이라는 영광의 소식이 들려왔다.



▲ 수중에서 건진 쓰레기들

'위기를 기회로'

다양한 기관에서 해양과 관련된 공모전 홍보 메일이 협회로 종종 들어온다. 공지할만한 사항은 밴드나 이메일을 통해서 지부와 공유하지만 사실 선뜻 나서서 참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대원들은 생계를 위한 본업이 있으며 그 외적인 시간에 봉사활동 하기도 바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로 많은 제약이 있어 외부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국면에 직면하면서 계획했던 행사들을 내년으로 미룰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남서부지부는 공모전 메일을 그냥 스치지도 않고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아 공모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활동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생겼으며 계획을 작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위기가 곧 기회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

공모전에는 전국적으로 110개의 단체들이 참가하였다.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은 단체들이 참가하면서 경쟁률은 치열했다. 딱 두 곳의 단체만이 우승의 기회를 가지며 각500만원의 활동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치열한 접전 끝에 우승의 영광은 전남서부지부에게 돌아갔다.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중 하나는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책정과 작성이 주효했다.

"아무래도 활동지원금을 받기 위한 공모전이기 때문에 지원금 집행계획에 대한 세목을 기재해야 한다. 해양정화활동에는 선박, 수중장비, 공기탱크, 마대 등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하다. 활동지원비를 작성할 때 충분히 부풀려지거나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실제 인터넷 최저가로 구매했을 당시의 가격을 솔직하게 기입하였고 우승에는 이러한 '정직성'이 한몫했다고 판단된다."



전문 잠수대원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남서부지부



▲ 수중정화활동 중

공모전에 제출했던 활동계획서에는 전남서부지부의 수중정화 활동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우리에게 수중정화활동은 익숙한 활동 중 하나이지만 사실 이 활동을 위해서는 오랜 잠수 경력을 지닌 봉사자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전국적으로 환경정화활동을 하는 많은 봉사단체들이 존재하지만 해양에서의 인명구조와 환경정화를 병행하며 폭넓은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단체가 많지 않다. 특히 전남서부지부는 장재구 협회장부터 오랜 경력을 보유한 전문잠수사로 수중해양정화활동 뿐만 아니라 서해바다에서 일어나는 굵직한 해양사고에 목포해양경찰을 도와 실종자 수색, 인명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비록 해양정화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은 40명 내외로 다른 단체들보다 많지 않은 인원일 수는 있지만 높은 기량의 잠수대원들을 다수 보유한 전남서부지부는 일당백의 역할을 수행한다.

긍정의 신호탄이 된 공모전

금년에는 의지를 불태우기보다는 꺾여질 일들이 많았다. 각종 활동에 제동이 걸리면서 지부의 1년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지부의 재정적 상황도 순탄치 않았다. 하지만 계획에도 없었던 공모전 우승으로 움츠려 있던 전남서부지부 가슴에 열정의 방아쇠가 당겨졌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날씨와 상관없이 대원들은 스쿠버 장비를 메고 바다로 향한다. 대부분의 행사는 취소되더라도 쓰레기로 몸을 앓고 있는 바다를 외면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이다. 공모전 우승은 그런 전남서부지부 대원들의 노력에 대한 ‘인정’이며 긍정의 신호탄 역할을 했다. 이미 방아쇠가 당겨진 전남서부지부의 활동계획은 무궁무진하다. 힘든 상황에서도 비약적 발전을 이룬 전남서부지부의 2021년 활약을 기대해본다.



▲ 전남서부지부 단체사진

국내 뉴스

수상레저안전법, 11월 27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반영해 개정 수상레저안전법령 시행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국민 편의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골자로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과 하위법령이 지난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약 18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인 무동력요트, 윈드서핑, 카약, 카누 등은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아 원거리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해주역* 이상 항해가 가능한 안전관리 선박이 동행하거나, 2대 이상의 기구로 무리를 지어(선단 구성) 활동하는 등 안전이 확보됐을 때에 한해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 연해주역: 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

또, 국내에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신규검사를 받기 전 시험운전을 하고자 할 때 관할 해양경찰서나 지자체에서 임시운항허가증을 발급받으면 운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시험운전의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으나,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별도의 비용 없이 임시운항허가를 받으면 가능해진다. 다만, 운항 허가 거리는 출발항부터 10해리(약 18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며, 시험운전 외에 수상레저기구 수입 등을 사유로 하는 장거리 운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최근 3년간 33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된 공기 주입형 고정식 튜브(블롭점프, 워터파크)에 대해 설치 높이, 수심 등이 포함된 사업 등록기준도 마련됐다. 특히, '블롭점프'의 경우, 등록기준 외에도 점프대 이용 인원·인명구조요원 배치 방법 등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이 개정 법령에 포함되면서, 고위험군 물놀이 기구를 국민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수상레저활동 안전장비 착용에 있어서 '구명슈트'의 경우 부력이 낮아 구명조끼와 같은 인명안전장비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구명슈트'를 안전장비로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단, '서프보드', '패들보드'의 경우 활동 시 구명조끼 부력으로 인한 활동의 제약 등이 있어 기존의 경우대로 구명조끼가 아닌 보드와 발목을 연결하는 장비(보드리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안전교육 위탁기관 등 조종면허 국가사무 위탁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 교재를 해양경찰청장이 감수하도록 하여 교육 품질 향상을 꾀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레저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신종 레저기구 등장으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기고 수상레저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와 법 개정, 국민 의견 수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 시행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 해양경찰청]

국내 뉴스

해양오염사고 응급조치 위해 이렇게 해주세요!

선박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예방 위해 응급조치법 쉽게 설명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바다에서 충돌·좌초·침몰과 같은 선박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기름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조치 안내 자료를 제작,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3년 통계에 따르면, 바다에서 선박 사고가 기름 유출 등 해양 오염으로 확산된 사건은 259건에 이른다. 특히, 2007년 12월 태안 만리포 인근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에 다른 선박이 충돌하면서 원유 12,547톤이 해상 유출돼 광범위한 해양 및 해안이 기름으로 오염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초기, 유조선 측에서 기름 유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름오염 피해가 확산됐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선장과 항해사는 법정 구속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와 같이 해양사고로 선박 연료 등 오염물질이 해상에 유출되면 어장이나 양식장 파괴, 환경오염, 항만 운영 정지 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그만큼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오염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선박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에 대비해, 해양오염 사고 응급조치 홍보물을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사고 시 선박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 기름 유출이 가능한 배관 차단 ▲ 기름 유출을 줄이는 운항 방법 ▲ 사고 발생 시 선박 내 실려 있는 기름을 다른 안전한 공간으로 옮겨 실는 방법 등이다. 이 자료는 해운선사 등을 통해 선박 종사자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안내 자료(리플렛) 구성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 사고는 2차 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그중에서도 해양오염의 경우는 여러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 신속히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안내 자료는 그림과 사고 사례를 들어 선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사고 경각심을 갖도록 구성해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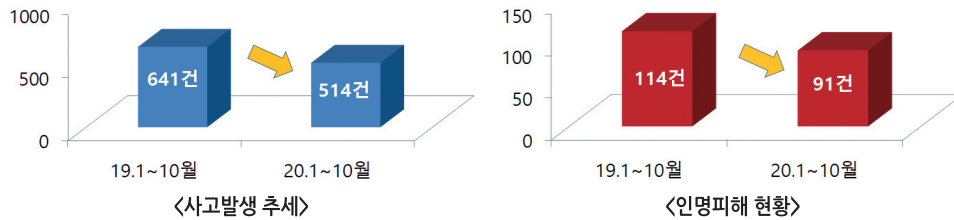
[출처 : 해양경찰청]

국내 뉴스

해양경찰청, 연안사망사고 지난 해 대비 두자리수 감소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사고 발생을 19%↓, 인명피해 20%↓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연안사고는 514건에 사망자는 91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연안사고는 127건(19%), 인명피해는 23명(20%)이 감소하였다고 지난 11월 13일 밝혔다.



매년 증가하던 연안사고가 올해 감소한 원인은 파출소 순찰 확대에 따른 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 활동으로 인명피해 감소, 국민 안전의식 향상으로 인한 결과로 분석됐다.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파출소 일일 평균 사고예방 순찰시간은 전년 동기 10.3시간과 비교하여 11.7시간으로 13% 증가했다.

지난 9월 29일 밤 울산 방어진 선착장에서는 주취객 2명이 물에 빠져 해상 부유물을 잡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입수하여 익수자 2명을 구조하기도 했다. 또한, 10월 22일 밤 전남 신안군 매화도 인근 해상에서 어민 등 10명이 갯벌에 고립되어 헬기를 현장에 출동시켜 호이스트를 이용해 고립자를 전원 구조된 사례도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갯벌사고 방지를 위해 '갯벌안전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해 갯벌 탈출법, 안전수칙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차량추락 사고는 매년 평균 43건, 인명피해 12명이 발생 했는데, 항포구는 일반도로와 달리 내비게이션 안내와 안전 표시가 되지 않아 운전자가 차량추락 위험을 미리 인지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추락 위험구역 진입시 사전에 안전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에 추락주의 화면 표출 및 음성안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범국민 구명조끼 착용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테트라포드, 갯바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연안사고는 여타 해상사고나 교통사고에 비해 사고발생 대비 사망 비율이 매우 높다."면서 "국민 스스로 위험장소 출입을 자제하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해양경찰청]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해수면 매년 3.12mm씩 높아져

남해안, 동해안 상승속도는 지난 30년보다 최근 10년에 1.3배 빨라져

지난 30년(1990~2019)간 우리나라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이 매년 3.12mm씩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작년에 발표한 30년(1989~2018년) 평균 상승률(연 2.97mm) 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홍래형)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을 연구하기 위해 30년간의 연안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하여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09년부터 연안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하여 매년 30년간의 해수면 상승률을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 21개 조위관측소의 자료를 분석하여 상승률을 계산했다.

해수면은 30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3.12mm씩 높아졌다.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제주 부근(연 4.20mm)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동해안(연 3.83mm), 남해안(연 2.65mm), 서해안(연 2.57mm)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지점별로 보면 울릉도가 연 5.84mm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제주, 포항, 가덕도, 거문도 순이었다. 작년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제주도는 소폭 감소(연 -0.2mm)한 반면, 울릉도의 상승률은 큰 폭으로 증가(연 +0.4mm 이상)하여, 올해 제주와 울릉도의 순위가 바뀌었다.

최근 10년(2010~2019)간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매년 3.68mm로서 과거 30년간 평균 상승률의 약 1.18배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수면이 지난 30년보다 최근 10년 새 더 많이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부근의 최근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과거 30년간 평균 상승률 대비 약 1.3배 이상 더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안의 경우 지난 3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이 연 3.83mm이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연 5.17mm, 남해안과 제주 부근의 3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도 각각 연 2.65mm 및 4.20mm였으나, 최근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각각 연 3.63mm 및 5.69mm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해안의 경우 지난 3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이 연 2.57mm이었으나, 최근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연 1.79mm로 유일하게 상승률이 느려지는 경향을 보였다.

홍래형 국립해양조사원장은 “국민 삶의 터전인 연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며, “이를 토대로 해수면 변동을 예측하고, 미래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적극 수행하여 국민 삶의 터전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정부간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IPCC*)’의 온실가스 농도 대표 이동경로 시나리오(RCPs**)를 적용한 지역 해양기후 수치예측모델을 구축하여 우리 연안에 적합한 고해상도 해수면 상승 전망(~2100년)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 달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기후변화 관련 전 지구적 위험 평가 및 국제적 대책 마련을 위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

※ RCPs(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대기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출 저감 정도에 따른 미래 농도 변화 시나리오 [출처 : 해양수산부]

국내 뉴스

해양폐기물, 끝까지 추적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12월 4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해 12월 3일 제정·공포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 관리법)의 하위법령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12월 4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은 그간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되어 왔다. 이로 인해 해양폐기물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였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먼저 해양폐기물의 하천 유입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해양폐기물의 상당량은 하천을 통해 유입*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수거·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지난 8월 말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쌓인 5천톤의 해양쓰레기의 처리가 늦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도 등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관할 하천의 쓰레기 등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 해양폐기물 중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양: 전체 해양폐기물의 60% 이상

※ 하천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될 경우 수거 및 처리 비용 상승, 재활용 가능성 축소, 어업 피해 등과 같은 경제적 피해 유발

또한, 기존에 처리 방법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관리되던 해양폐기물을 해안폐기물(바닷가에 있는 폐기물), 부유폐기물(해상 또는 해중에 떠 있는 폐기물), 침적폐기물(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폐기물)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와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해양폐기물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해안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거하고, 부유폐기물과 침적폐기물은 해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이나 시·도가 해역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거의 우선순위를 정해 수거해야 한다.

폐기물을 공유수면 매립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어 사업 대상지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오염이 심한 준설품질을 사용하여 악취·해충 등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번 법률에서는 해양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저준설토사와 조개류의 껍데기로 정하고, 오염도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따르도록 하였다.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체의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에는 업체 등록에 필요한 선박을 ‘펌프준설선’으로 한정했으나, 펌프준설선은 큰 자갈이나 폐기물 등이 혼합된 퇴적물을 처리할 때 잦은 고장을 일으켜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제정 법령에서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체에 등록할 때 펌프준설선 외에도 밀폐형의 그랩(grab)이나 버킷(bucket)이 장착된 굴삭기형 수거선이나 신기술·신공법이 적용된 수거 선박으로도 정화업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액화한 후 해저 800미터 이상의 깊은 지층에 격리하여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을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로써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CCS(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시설 등으로부터 포집(捕獲)과정을 거친 이산화탄소를 말하며, 런던의정서(해양배출 관련 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에 해당됨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해양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해양폐기물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강화되어 해양폐기물을 저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해양폐기물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폐기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해양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해양수산부]



협회교육안내

2021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교육생 모집 안내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는 「수상구조기술향상과정」의 일환으로

2021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실기시험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구조사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개요

- 과 정 명 :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 주 관 : 한국해양구조협회
- 교육대상 : 수영 100m 이상 가능한자, 해경특공대(경찰공무원 희망자), 생존수영강사 활동희망자, 실내수영장, 워터파크, 해수욕장, 각종 물놀이 시설 등에 안전요원으로 취업희망자
- 교육 및 접수기간 : 연중 주말반 운영(홈페이지 및 전화 문의)
- 교육인원 : 과정별 각 40명(홈페이지 접수, 선착순 마감)
- 교육장소 : 부산사직실내수영장 내 강의실 및 수영장
- 교 육 비 : 금500,000원(수협 1010-1020-6229 한국해양구조협회) ※수영장입장료 포함
- 준 비 물 : 수영복, 수모, 수경, 세면도구, 필기도구, 증명사진(1장), 신분증

■ 주요사항

-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며, 본 교육기관에서는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64시간만 진행됩니다. 시험일정 및 장소는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교육수료 후 개인이 직접 해양경찰청에 신청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사정으로 인해 수상구조사 교육(64시간) 미 이수 시 추가 보충교육을 받아야 수료증이 발급되며, 보충교육 일정은 교육상황에 따라 추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 교육시작일 부터는 환불이 불가하오니, 수강취소를 원하시면 교육 전 환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문 의 : T. 051-714-3122, F. 051-714-3095, E. kmrc119@hanmail.net
- 한국해양구조협회 홈페이지 www.marsa.or.kr
-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 <http://imsm.kcg.go.kr>

협회교육안내

2021년 『인명구조요원/강사』 교육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한 구조대원의 절대적 안전은 물론 요구조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에서의 전문화된 교육을 통한 인명구조요원 육성

| 2021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21년 1월 ~ 12월(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관할 지역 실내수영장
- 대 상 : 요원 - 만 16세 이상 누구나
강사 - 요원 자격이 있는 자
- 교육과정 : 인명구조요원 교육(40시간), 인명구조강사(60시간)
- 준비물 : 수영복, 수모, 수경, 오리발, 세면도구, 필기도구, 증명사진1매
- 교육비 : 요원 22만원 / 강사 30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불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교육시작 후 환불 불가)
- 교육과목
 -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16시간) / 기본인명구조술 등
 - 인명구조법(24시간) / 구조영법, 종합구조술, 장비구조술 등
 - 인명구조 교수법(20시간) / 기본인명구조술, 장비구조술 등

· 자격명
인명구조요원, 인명구조강사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인명구조요원(2014-1485)
인명구조강사(2014-5724)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민홍기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인명구조요원 / 인명구조강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협회교육안내

2021년 『재난안전지도사』 교육

각종 재난·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문화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및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있는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함

| 2021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21년 1월 ~ 12월(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대 상 : 1급 - 재난 2급 이수자로 고졸 이상의 만 18세 이상
2급 - 재난 3급 이수자
3급 - 제한없음
- 준 비 물 : 필기도구, 증명사진1매
- 교 육 비 : 1급 30만원 / 2급 10만원 / 3급 5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교육시작 후 환불 불가)
- 교육과목
 - 재난안전의 의미(8시간)
 - 위급시 행동요령 및 구조구급(8시간)
 - 재난안전 교수법(50시간)

• **자격명**
재난안전지도사(1급/2급/3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2015-003725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민홍기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재난안전지도사(1급/2급/3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021년 『해양안전지도사』 교육

각종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문화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문성 있는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함

| 2021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21년 1월~ 12월(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대 상 : 1급 - 해양 2급 이수자로 고졸 이상의 만 18세 이상
2급 - 제한없음
- 준 비 물 : 수영복, 수모, 수경, 필기도구, 증명사진1매
- 교 육 비 : 1급 30만원, 2급 10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교육시작 후 환불 불가)
- 교육과목
 - 해양안전·생존 등 해양사고예방의 의미(8시간)
 - 선박화재, 충돌, 침수 등 위급 시 행동요령(8시간)
 - 해양안전·생존 등 교수법(50시간)

• **자격명**
해양안전지도사(1급/2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2015-002815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민홍기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해양안전지도사(1급/2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협회교육안내

2021년 『생존수영지도사』 교육

해양사고 발생시 개인의 생명유지를 위하여 생존수영 및 사고대처요령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등의 업무 수행

| 2021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21년 1월 ~ 12월(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실내수영장 및 잠수풀장, 회의실, 강당
- 대 상 : 2급 - 만 16세 이상, 사전평가(자유형/평영 각50m, 잠영10m) 합격자
1급 - 2급 자격증 보유자 중 동 교육에 10시간 이상의 교육에 참여한 자
- 준 비 물 : 필기도구, 수영복, 수모, 수경, 세면도구, 증명사진1매
- 교 육 비 : 2급 20만원 / 1급 20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교육시작 전날 까지 100% 환불 (교육시작 후 환불 불가)
- 교육과목
 - 생존수영지도(12시간)
 - 응급처치지도(4시간)
 - 생존수영이해(8시간)
 - 교수법(8시간)

- 자격명
생존수영지도사(1급/2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생존수영지도사(2020-005567)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민홍기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 상기 "생존수영지도사(1급/2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협회후원안내

1) 월 정기후원 안내

- 아래의 계좌번호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은행 : 수협 | 입금계좌번호 : 1010-1020-6195 | 예금주 : 한국해양구조협회

2) 특정목적사업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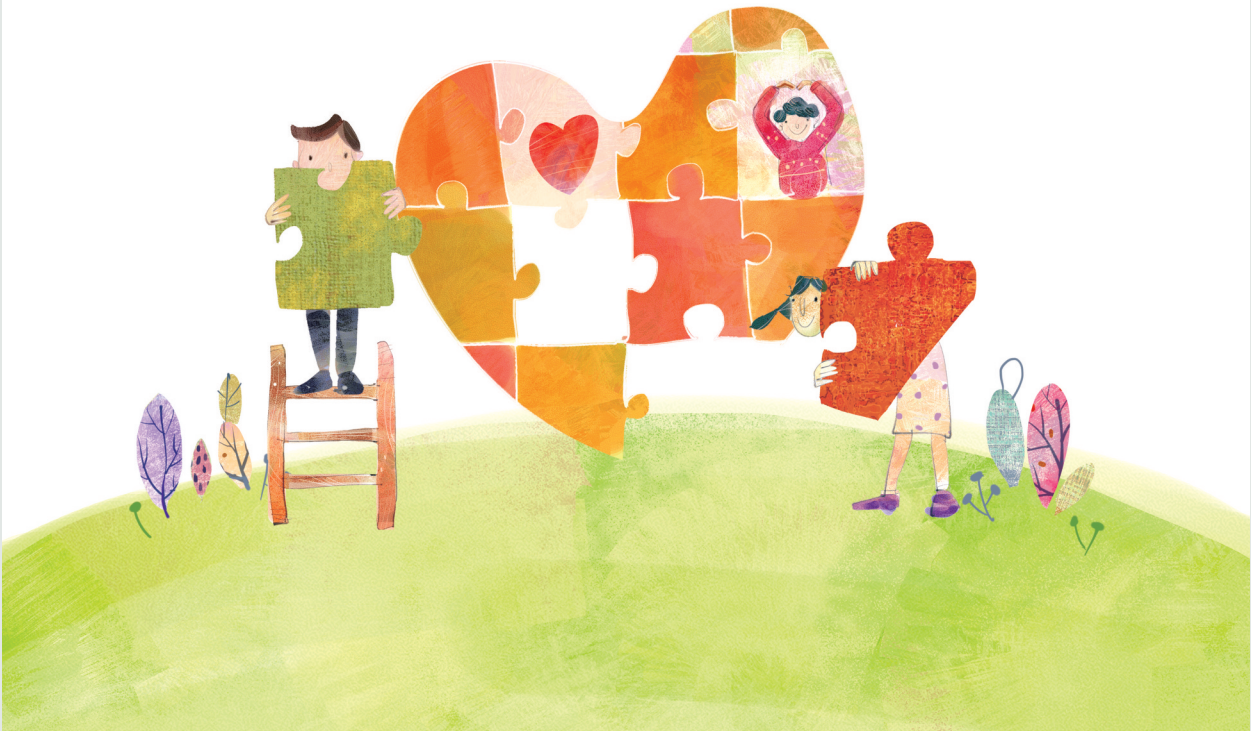
- 구조장비 보급사업, 청소년안전교육, 바다쓰레기 정화활동 등 특정 프로그램에 협찬,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사홍보물에 후원자의 이름, 로고 등을 넣어드립니다.

3) 후원회원이 되시면

- 후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홍보물을 보내드립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행사에 우선 초대해드리며, 참가비가 있을 때는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 해양안전지킴이로서 보람과 긍지를 돌려드립니다.

4) 문의

| 전화 : 051-714-3695 | 팩스 : 051-714-3095 | E-MAIL : kmrc119@hanmail.ne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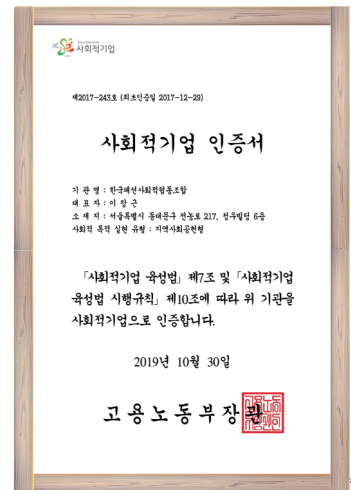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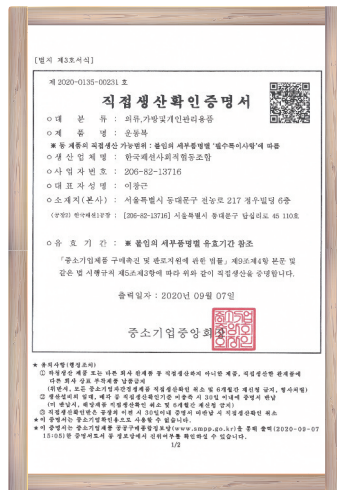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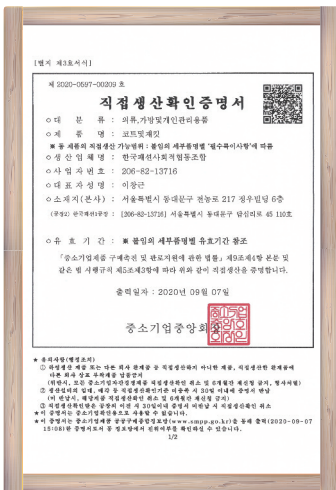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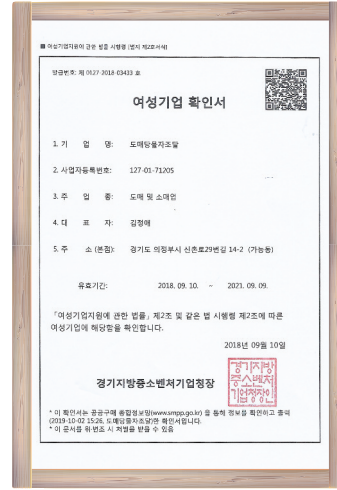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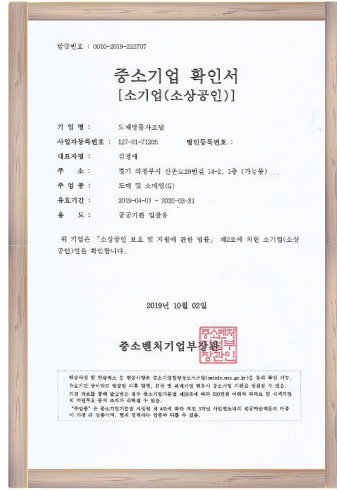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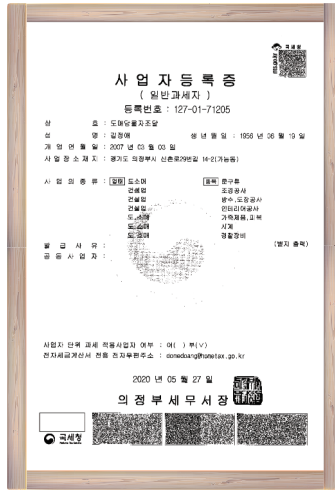




고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앞서가는 기업 도매당물자조달



단체복, 근무복, 경찰복, 구조복, 퓨마, 프로스펙스, 세필드, 츠리닝, 모든 피복 직접생산
경찰장비, 행사용품, 기념품, 상패, 명패, 시계, 가죽제품, 관서기, 태극기, 관공서기



회사명. 도매당물자조달 / 대표자. 김정애 / 사업자등록번호. 127-01-71205 / 대표전화. 1544-8745
팩스. 02-6455-8745 / 통신판매업 신고. 의정부-0506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 29번길 14-2
E-mail. 120@hanmail.net / 정보관리책임자. 영업부 팀장 이재우 (120@hanmail.net)

고객과 함께 내일을 꿈꾸며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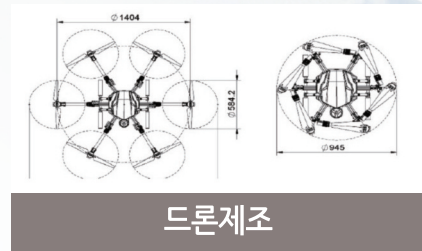
(주)경기항공



드론촬영



드론방제



드론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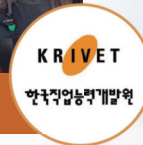


드론국가자격증교육



정비사
촬영사
계기비행
방제사
VTOL

드론민간자격과정



홈페이지 <http://kgf.creatorlink.net> | <http://kgfdrone.cafe24.com>
본 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76, 동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5302호
Tel. 031-576-0801
비 행 장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353-81
경기도 여주시 강촌읍 이호리 353-10
지 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경남진해,
여주, 전남, 강원, 김해, 양산, 순천

